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2호 / 2026년 07월 10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7/8일 임단협 요구안, 사측에 전달!!

-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 요구

지난 7/8일, 금속노조 중집심의를 통해 승인된 26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사측도 만도지부 요구안에 대해 검토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질 것입니다. 예년보다 한 달여 늦어졌습니다. 휴가 전 타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금속전환 상황에서 조직체계 등을 갖추는 과정이 임단협을 늦춘 배경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교섭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만도지부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1박2일 동안 교섭위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금속전환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교섭과 투쟁인 만큼 교섭위원들의 역할과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뒤이어 7/15일부터는 3/4분기 조합원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 조합원 교육에는 기업노조와 산별노조에 대한 차이를 준비했고 지부장 간담회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26년 임단협 요구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만도지부를 둘러싼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 26년 임단협, 흔들림 없는 계획과 긴 호흡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임단협 요구는 단순히 요구안만 사측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 요구이며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월급제 이후 정제된 실질임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일한 만큼의 성과분배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년연장 법제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치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교섭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고용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6년 임단협,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①

앞서 교섭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섭은 교섭위원만의 요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측도 교섭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치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집행부가 투쟁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구안을 전달했고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정당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번 요구는 한 두 명의 요구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닙니다. 올해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생존권 요구입니다.

□ 정년연장과 신규채용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고용안정 요구입니다!

이번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요구는 단순히 일부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속전환 이후 확 인되고 있는 것은 과거 구 만도 사업장과 완성사 그리고 대다수 기업들이 정년 이후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배경 역시 이런 사회적 추세를 부정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법정 정년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기업은 노사가 별도 합의한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으로 고용보장을 도입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유독 만도만 신규채용이 전면 중단되고, 정년 이후 고용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적인력 유지 없이 기업만 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요구는 퇴직을 앞두고, 10년, 20년 남아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임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조직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만큼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고용안정에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보충교섭 요구, 일방적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7/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석

지난 25년 12월 만도지부가 요구한 보충교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26년 2월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에 대한 일방적 거부 재발 방지 △26년 임단협 교섭에서 통상임금을 정식의제로 삼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